후원회소식

통권 181 호 | 발행일 2006. 11. 17 | 발행인 권오헌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006 회원역사기행

2006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역사기행

강화도 초지진의, 지금도 외세가 쏘아대던 포탄의 흔적이 남아있는 성벽과 노송 앞에서 눈부신 햇살 아래 선 회원들.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헌 • 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 김규철 서옥순 선생님을 찾아뵙고 안진걸 • 4 / 감옥에서 온 편지 최은민/이문희/전욱용 • 10 / 슬픈 일이 있었어요 • 12 / 회원마당 · 비극적 서사의 땅, 강화도를 찾아서 이현근 • 14 / 2006회원역사기행지 강화 • 16 / 알립니다 • 20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2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4 / 재정보고 • 31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2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평화와 생명 정신에 배치되는 정치 재판

- 김지태위원장 등 평택지킴이들은 무죄이다. 조건없이 석방하라. -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회장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이며 평성주민대책위원장인 김지태 대추리 이장에게 이른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7가지 혐의 공소내용을 모두 인정 실형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같은 실형선고는 평화와 생명의 땅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외면한 채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려는 미국과 국방당국(정부)의 압력에 따른 정치재판이란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했다.그것은 김지태 위원장이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에 대해 평소에 갖고 있던 생활 신념을 당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 자진출두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 구속한 예나 재판 진행과정에서도 새로운 점도 없는 추가 증거제시를 사유로 한 재판연기 등 영향력 있는 주민대표를 감옥에 될 수 있는 한 오래 묶어두고 미군기지 확장작업을 강해하려 했다는 데서 그러했다.

또한 김지태 위원장의 실형선고 구속 연장이 확정되자마자 국방당국은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에 대한 추가 철조망 설치작업에 들어간 데서도 드러났다. 국방당국은 이미 대추분교 파괴, 황새울 들녘에 대한 철조망 설치, 부당한 검문검색, 이른바 빈집철거 등으로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를 더욱 고립시키고 끝내는 주민들과 평택지킴이들을 폭력으로 내몰아내려는 속셈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8일 현실로 다가왔다. 국방부는 경찰병력 4,000여 명과 공병대 용역업체 포크레인 10여 대를 동원 문무인상과 대추리 가장자리 강 주변 등을 파헤치고 철조망 설치작업을 강행했다. 이에 항의하는 평택지킴이 9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어 경기도 부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추리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굣길까지 막아서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분명히 외압에 따른 정치재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으면 자유로운 방청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짓밟으며 법원 앞에 3개 중대 경찰병력을 배치 주민의 방청을 막았으며, 심지어 김 위원장 부모님마저 방청을 못하게 하는 빈인륜 행패를 자행했다.

재판부는 위에서도 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7가지 공소 내용을 인정했지만 피해자 증인 심문에서 확실하게 증거될 만한 증언을 한 게 없고 실제로 김 위원장은 대책위 지도부로서 대부분 발언만 했다고 주민들은 말했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연행되었거나 구속되었던 대부분이 무혐의였거나 불구속 입건 또는 영장실질 심사나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하여 구형을 인정한다 해도 통상적으로 구형 4년이라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일반적 관행과도 거리가 먼 판결이었다. 이는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원칙, 확정판결(대법선고)이 있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계획적인 탄압행패였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없이 동등한 법률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 규약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다. 김지태 위원장을 비롯한 팽성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것은 주민들 개개인의 이익 때문이 아니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평화의 땅 생명의 땅을 지키려는 진정성 때문이다. 일제 때는 일본군에게 빼앗겼었고 6 · 25전쟁 때에는 다시 '전쟁수

행 명분'으로 미군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내쫓겨 갯벌과 황무지를 피땀으로 개간하여 오늘의 황새울 벌을 마련한 생존의 땅을 지키려는 진정성이다.

그러나 황새울 들녘은 생존의 땅만이 아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생명과 평화의 땅이기도 한 것이다. 확장되는 미군기지은 바로 생명과 평화를 앗아가는 전쟁기지이고 더구나 동족을 겨누고 동북아패권을 노린 침략기지가 될 것이다. 김지태 위원장이 "평택이 무너지면 이땅이 무너진다."라고 한 말은 바로 평택미군기지가 확전의 전초기지가 됨을 염려한 말이다.

공안당국이 집시법이니 공무집행방해 등을 말하고 있지만 전쟁의 참화를 막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그러한 실정법 따위 가치보다 월등한 상위개념이다. 안중근 의사가 2천만 조선 민족의 안위와 동양 평화를 위해 조선침략의 원흉을 응징한 것은 일제의 실정법으로는 살인행위이었지만 더 많은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공동선이고 인류애 정신의 발로였었다.

김지태 위원장이나 연행되고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평택지킴이들은 평화와 생명의 땅을 지키려는 한결같은 의지와 인간의 양심에 따른 확신에서 행동했던 확신수 · 양심수였다. 그 점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반민주적인 집시법 등을 적용시켰거나 그것이 진정 공무집행이었는지 가치 판단없이, 그리고 군사시설이 전혀 없던 곳에 갑자기 팻말을 박아놓고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시킨 것은 인류가 지향해온 정의 평화 인권에 대한 부당한 도전이며 천박한 판단일 뿐이다. 바로 재판부가 헌법상의 평화의 개념과 법적용에서 정의 평화 인권의 올바른 가치판단 그리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야 하는 민족적 양심으로 이 사건을 다루었다면 이러한 부당한 판결은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미국의 해외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른 한미 간의 굴종적 예속 관계의 결과물로서 지난 1월 20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제1차 한미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무관치 않다. 바로 주한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신속 기동군으로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침략 동맹하는 전략기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한 미군은 2008년까지 추가 감축이 계획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 미군기지를 엄청난 규모로 확장하는 것은 대북선제공격과 동북아군사패권을 노린 침략기지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야 하는 우리 민족의 이익과 안전에 전면 배치되고 있다.

내손으로 일궈온 생명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겠다는 소박한 뜻과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해치는 외세의 침략기지화를 반대한 김지태 위원장을 비롯한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과 평택지킴이들의 주장은 백 번 정당하다.

이제까지 올해 들어서만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시위와 관련 강제연행된 사람은 719명이고 7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김지태 위원장과 노수희 전국연합공동의장 등 8명이 구속되었고 71명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벌금 총액만 3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김지태 위원장과 노수희 공동의장 등 구속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평택 관련 불구속 기소되었거나 연행된 지킴이들은 불기소처분 · 석방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계획 백지화하라.

61년간 강점하고 있는 주한 미군 철수하라.

"나는 휴머니스트, 그리고 사회주의자!"

- 모진세월을 함께 살아온 김규철 선생님과 서옥순 어머님을 찾아서

안진걸 | 희망제작소

민자통 회원으로, 범민련 서울시연합 의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규철 선생님. 얼굴을 뵈니 집회장에서 매우 낯익은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고 처음에 인터뷰 약속을 잡기 위해 전화를 드렸을 때, 저는 김규철 선생님의 연세가 50대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위해 실제로 하남에서 뵙게 됐을 때는 60대 초반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연세는 '73세',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젊게 보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낙관적으로, 건강하게 살다보니 그러하다."라고 껄껄 웃으십니다. 집안은 모두 단명인데, 어머님과 선생님은 오래 살고 계신다고. 현재 어머님의 연세는 91세.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제 질문에 말씀도 잘 해주셨고요. 지난 2005년 평양 아리랑 축전에 다녀오신 일을 말씀해주시면서 "어서 통일이 돼야지. 조선 민족이면 안 바라는 사람 어디 있을까!" 강조해주실 때, 그만 살짝 감동을 받아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답니다.

김규철 선생님. 평생을 조국의 민주주의와 통일, 민중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싸워온 또 하나의 전사. 수많은 전사들이 있었기에 지금만큼 이라도 민주주의, 자유, 통일의 기운, 민중복지의 기운이 가능했음을 요즘 사람들은 명확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평생 감옥을 6번, 그 중에서 60세가 넘어서 2번이나 감옥에 갇힌, 이 '영웅적인' 전사의 투쟁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보다 안온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과 도리일 것입니다.

노(老) 전사(戰士)선생님들을 만나 뵈면서, 이 분들 스스로나 부모님께서 대부분이 항일운동에 참여한 경험으로 해방 후에도 민족 · 민중의 진정한 해방 편에 섰다고 모진 죽음과 고초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부모님과 함께 그러니까, 한 세기 동안을 민족 · 민중 해방운동에 투신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이분들의 삶과 투쟁 그 자체가 이 땅 해방투쟁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정반대에 친일과 독재, 친미와 사대의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전에 완전히 타파해야 할.

때론 인터뷰를 진행하는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선생님들은 노구를 이끌고 지금도 투쟁하고 계십니다. 조국의 민주주의와 통일, 민중의 참된 삶은 아직 멀었다고 하시면서, 철야농성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투쟁의 시대는 끝났다'는 아주 편한 자기합리화를 반복하면서, 이제는 전선에서 이탈

하기를 일삼습니다…….

오늘 글은 이렇게 스스로의 반성 및 다짐과 함께 합니다. "참된 삶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을 향한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 속에 있다네……." 인터뷰를 마치니 김남주 시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11월 12일(일) 오후, 하남 덕풍시장 부근에 있는 김규철 선생님 댁, 책이 가득한 서재에서 진행한 인터뷰 전문입니다.

-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시는데 하남에서 다니시는 건 어떻세요?

"범민련 사무실이 서울역에 있고, 집회나 행사도 주로 종로 등 시내에서 있으니까 좀 멀긴하지요. 버스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보통 1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다녀요. 아직은 건강해서 다닐만해요."

-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추모연대 박중기 선생님과 동갑이시네요.

"그렇죠. 연배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64년 1차 인혁당 때 함께 수감됐던 동지입니다. 그리고 74년 2차 인혁당 때는 둘 다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감돼 있어 '2차 인혁당 화'를 피한 인연을 가지고 있지요."

- 그때는 어떤 사건으로 수감되신 거죠?

"기본적으로 조작된 사건이라, 이름도 기억이 안나요. 72년도에 잡혀들어갔는데요, 뭐 '고정간첩단'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어요. 한 50여 명 연행돼, 10명이 징역을 살았죠. 그때 5년간 갇혀 있다 보니 2차 인혁당 사건을 피하게 된 거에요. 이 사건은 반독재 통일운동 지하 써클이었는데요, 이걸 뭐 수십 년 고정간첩 사건으로 조작한 사건이었죠."

-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선생님 어렸을 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머님(서옥순, 91세) 고향은 대구인데 시집을 부산으로 가셨어요. 아버님이 부산 기장군 사람이어서 거기서 결혼했는데, 그때는 일제시대였어요. 아버님은 부산 신간회 활동, 노동자 사건 등 항일운동을 하셨어요. 노동자 사건 때는 옥에도 갇히셨고요. 해방 때까지 쭉 투쟁하다가 해방을 맞이했지요.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을 도우면서 해방이 되자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에 참여해 활동하기도 하셨고요. 전 그렇게 두 분 사이에서 1934년도에 태어났어요. 한국 전쟁이 날 때쯤엔 중학교 4학년으로 나름대로 성장해 있을 때였지요."

- 아버님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해방 후 전국노동자평의회(전평) 부산시지부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48년도에 해주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다가 대의원으로 뽑혀서 평양에서도 활동하시면서, 김일성종합대학도 다니시고, 거기서 검찰로도 활동하셨어요. 그러다 50년 전쟁 나던 해에 남으로 오셔서, 부산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전쟁 후 7월 25일경에 검거돼 8월 2일날 경남도경에서 즉결처형당한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님은 부산에서 과거의 조직을 복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부산 대청동 뒤로 돌아가면 있는 바닷가 근처 야산에서 처형이 있었다고 목격자들한테 들었어요. 영장도, 재판도, 기록도 아무 것도 없이 처형당하셨고, 지금까지 어떤 기록도, 어떤 유골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버님께서 1905년생인데, 한참 나이 때 자식들도 제대로 못 본 채 돌아가신 것이죠."

- 어머님은 당시에 어디에 계셨나요?

"어머님은 부산에 계셨는데, 아버님이 내려오신 것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검거 소식을 듣고 모든 식구들을 피하게 하셨죠. 2남 1녀인데, 그때는 전쟁 통이라 '빨갱이' 가족은 모두 죽인다고 해서 아버님을 뵐 시간도 없이 모두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당시 군수공장 재봉틀 일을 하실 때인데, 젖먹이 동생을 업고 피하셨고. 남동생은 대구 외할머님 댁으로 피하고, 전 부두노동자로 들어가서 함바집에서 하역작업을 하며 숨어 지냈죠."

– 그럼, 아버님 처형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때 아버지를 숨겨준 곳이 외가 집인데, 외종형이나 자형 등이 심부름을 했다고 모두 연루돼 잡혀 들어갔어요. 다행히 그분 들은 용케 안 죽고 감옥에 있으면서, 아버님 처형 소식을 들으신 것이죠. 저희도 나중에 들었고, 당시는 면회는커녕, 유골도 찾으러 갈 수가 없었어요."

– 아버님은 현재로서는 바람 속에, 역사 속에 묻혀 계시네요.

"그런 셈이죠. 그 어디에서도 아버님의 유골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진실과화해위원회>에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위원회가 권한도, 인원도, 기간도 모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조사할지 걱정입니다."

–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은 어떻게 다시 만나셨나요?

"당시 어머님이 아버님을 숨겨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들이 어머님을 반공법상 은닉죄로 수배를 해서 어머님이 숨어계시다 잡혀서 젖먹이랑 잡히고 말았어요. 거기서 고문도 당하고, 잡혀 계셨는데, 이미 남편이 처형당한 뒤라, 또 부인이라는 특수관계로 수발을 든 것이기에 1주일 후쯤 풀려나셨어요. 그때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됐지요. 그러면서 서서히 전쟁도 마무리가 돼 갔고요. 그때 생각해보면, 당시 남한만의 단독선거 UN 감시단장이 인도사람이고 이름이 '메논'이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전쟁 통에 민간인 학살이 잦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살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남쪽 정부에 했다고 해요. 좀 영향을 끼친 것 같더라고요."

– 다시 가족이 모여서 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53년도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집에 갔더니 장독과 솥만 빼고 모든 걸 압수해 갔어요. 생활이 참 막연했어요. 마침 집 바로 옆에 철조망 곁으로 부산서면 점포동 수용소가 있었는데요, 길가에 구멍가게를 내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지요. 포로수용소 감시병들이 교대 시간에 저희 가게에 와서 물건도 사고 떡국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흥화공업회사—아버님이 다니던 회사—에 취직하셔서, 공장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전 고등학교 복학해서 당시 부산대 53학번 법학 전공으로 학교를 갔는데, 대학을 다니기에는 우리 형편이 너무 벅찼어요. 그래서 중도에 그만두고 학원 강사로, 고등학교 강사로 일을 했었죠. 그때는 아무 것도, 어떤 투쟁도 할 수 없던 시절인지라 그렇게 생업에 종사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4 · 19가 터진 것이죠."

– '환희의 4 · 19'. 선생님 인생도 이때부터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인가요?

"4 · 19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당시 교원노조 일을 2년간(부산시 중등교원노조 선전위원장) 했어요. 그런데 5 · 16 터지니 제일먼저 교원노조부터 검거를 하더군요. 그래서 61년 5월 18일 잡혀 들어가서 8 · 15 특사로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 감옥은 아니고요, 거슬러 가보면 1948년 2.7 구국투쟁 때, 전국에서 단독선거반대 항쟁에 참여해서 보름정도 잡혀 있던 게 첫 감옥이지요. 당시 중2 때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둬 놓지는 않았어요."

– 감옥에 나오신 후 생활은 어떠셨나요?

"교사직은 복직을 못하고, 나중에 68년도에 복직했지요. 그때까지 삼촌이 경영하던 메리야쓰 공장도 가고, 외사촌이 경영하던 제화공장도 가고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1차 인혁당 사건이 터졌지요. 과거 민자통(민족자주통일협의회—4 · 19 이후 조직돼서 5 · 16 때 깨짐)에서 도예종 선생님(2차 인혁당 때 처형당함)이 수배 받는 동안에 옛날 감옥에 있던 사람들 찾으면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위한 지하 써클을 주도한 것이에요. 저도 도예종 선생님과 인연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수감돼 1년 정도 살다 나왔지요. 64년 한일협정반대운동 6 · 3사태가 나니까, 인혁당을 그 배후조직으로 급하게 조직한 사건이지요."

– 그러니까 벌써 3번째 수감된 것이네요. 다시 출소해서는 어떠셨어요.

"65년에 출소해서 다시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대학 후배들이 뭘 만들자고 했는데…… 대학생과 연결돼 있는 선배조직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민주화운동을

위해 함께 참여했지요. 그러다 68년도에 복직해서 다시 교사생활을 했고요. 그렇게 활동하고 생활하다가 또 72년 고정간첩단 사건이 터진 거에요. 그때는 모든 민주화운동 단체가 지하 써클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폭압적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저희 써클 최상층부 극소수가 유명한 이북의 밀사였던 황태성을 만나기도 했었나봐요. 그걸 트집잡아서 대형 고정간첩단 사건을 터트린 것이죠. 그렇게 72년에 검거돼서 다시 77년도까지 5년을 대전교도소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많은 비전향장기수들을 만났어요. 감옥에 있을 때 72년 7 · 4공동성명할 때 굉장한 기쁨과 환희를 느꼈던 기억이 나요. 잘 하면 바로 나갈 수 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웃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내 죄가 무기감인데, 7 · 4공동성명 때문에 5년형 정도로 된 거라고 하데요. 죄목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기소됐는데, 정말 짧게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4번째 감옥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 그야말로 고난의 역사를 사셨습니다. 그 후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77년도에 출소해서 부동산업도 하고, 생명보험도 하고 여러 일을 했지요. 생업을 챙겨야 하니까요. 또 활동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 어머님과 같이 구멍가게도 하고, 다시 보험모집인도 하고, 마침 아내는 빨갱이 아내라고 학교에서 해직됐다가 78년도에 복직시험을 봐서 서울 남성초등학교 교사로 복귀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80년대를 맞이했고 그때는 생업에 열중하던 시기지요."

- 다시 뒤로 돌아가서 여쭈겠습니다. 사모님은 언제 만나셨어요?

"1차 인혁당 사건, 지하 써클 때 처남(처 오빠)이 제 동지였어요. 그 동지가 1차 인혁당 때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심하게 당하고, 위협받으니까 취조실에서 탈출을 시도, 뛰어내리다가 사지마비가 되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렇게 한 5년 누워 있다 세상을 떠났지요. 역시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때 그 동지가 활동할 때 소개시켜준 사람이 지금의 아내입니다. 앓아 누워서 '동생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오빠 이름은 이상배였고, 처 이름은 이영자에요. 우리는 그렇게 6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아내는 직접 사회운동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었지요.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임하고 지금은 집에 같이 있어요."

-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어머님은 그 당시 어떻게 지내셨나요?

"부산에서는 식당경영을 하시다가 제가 72년 수감되면서, 제 옥바라지를 위해서 아예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 아내가 밀양 밀성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학교 당국에서 빨갱이 마누라라고 해가지고 사퇴를 강요해, 결국 아내도 사퇴를 내고 어머님이랑 같이 서울로 올라오게 됐지요. 처음에 도봉구로 왔어요. 쌍문동에 종합상가를 누가 지었는데, 그중에 가게를 얻어가지고 생활했는데 전혀 안돼서 그래서 가게를 내주고 남가좌동으로 이사가서 버스종점에서 가게를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셨다가 다시 미아동으로 이사를 가서 식당을 하시고…… 옥바라지 하랴, 생계 챙기랴 고생많이 하셨죠."

- 79년도 박정희가 고인이 됐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구멍가게를 할 때였는데, 이승만이 죽었을 때도 민중들이 기뻐했잖아요. 4 · 19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역사를 비약시켰던 계기니까요, 박정희에 대한 증오는 말로 다 못하죠. 업보라고 해도 되고. 단지, 애석한 것은 우리의 투쟁으로 꺾어 내린 것이 아니라 권력 내부에서 죽어서, 역사의 단죄를 받지 못하고 묘하게 부하의 총탄에 죽어서 마치 비운의 죽음으로, 안타까운 죽음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까워요. 우리들의 힘으로 권좌에서 끌어내지 못해서 결국 80년 광주가 생겨버린 것이죠. 저는 박정희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끌어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요. 그래서 광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 77년 출소 후 오랫동안 생업에 전념하시다 언제 다시 사회운동으로 돌아오셨나요?

"80년대가 되고, 전 친구들과 산에 다니는 일에 매진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산을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 7년 일하면서 그렇게 산에 다니다가 87년 대항쟁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시민항쟁을 계기로 다시 사회운동 현장으로 뛰어들었지요. 이때다 싶었고요. 그래서 다시 혁신계 일을 하던 분들을 만나 민자통 창당 멤버로 활동하다가…… 그때 노선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하고, 그렇게 몇 년 활동을 하다 다시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가기도 했죠. 나름대로 노동현장에 다시 투신한 거였어요. 보일러 만드는 수국 주식회사가 충북음성에 있었는데 음성에 공장에 가서, 기숙사로 들어갔다가, 주말에 서울 오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때가 제가 벌써 50대 후반이고, 충청도 사람들이 대체로 보수적이어서 노조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에 와서 그때 동서가 케이블티브이 사업권을 받아서, 케이블티브이 일을 쭉 했어요. 한때 코리아케이블정보통신(주)에서 대표이사로도 일했지요. 95년부터 99년까지 대표이사로 일했는데, 이때는 사업에 전념하던 때입니다."

– 그때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민자통' 의장을 맡으신 건가요?

"97년 정권교체도 되고, 한 99년부터는 제가 하는 사업이 잘 안됐어요. 또 생업에 오래 종사했으니까 또 사회운동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민자통 상임의장으로 다시 일하게 됐어요. 이때부터 나이 들어서, 사회참여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그때 민자통 의장을 하면서 자연히 범민련 부의장이 되고, 99년 중국 용정에서 남북이 문익환 목사 추도식을 같이 하자고 북에서 제안이 와서, 남쪽에서 전국연합, 범민련과 함께 4명이 갔어요. 그렇게 용정을 갔다가 와서 공항에서 바로 연행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돼 3개월 정도 살았어요. 5번째 수감이었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최초 구속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그때가 제 나이 66세 때입니다."

– 아, 그게 마지막으로 감옥에 가신 것이겠네요?

"아니요. 한 번 더 있어요.(웃음) 그렇게 또 나와서 활동하다가 2002년도에 남 · 북 · 해외 범민족대회를 했다고 하는 바람에, 그때 대표로 참여했는데, 신고를 하고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헌장탑'에 갔다는 것과 범민족대회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또 귀국하자마자 연행돼 3개월 살다 나왔어요. 그때는 69세였고요. 국가보안법상 회합 · 통신, 이적단체가입죄(범민련) 등이 적용됐고요, 지금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제가 상고한 것이죠. 신고하고 올라가서 행사에 참여한 것이 무엇이 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 어머님도 이북에 갔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아리랑 대회 할 때, 어머님하고 여동생하고 평양에 아리랑축전 갔다 왔지요. 어머님 연세가 90이신데 다녀오셨어요.", "참 좋았어요. 이북에서 잘 대해주고. 어서 통일해야죠. 우리 조선 사람이면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어머님 말씀)"

– 아드님이 두 분 있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애들은 나로 인해 부모의 혜택을 못 받고 하니까, 많이 원망스러워 했어요. 흔히 말하는 문제아로 방황했어요. 그래도 대학 들어가더니,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조금씩 이해해주더라고요. 큰 애가 88학번, 둘째 애가 90학번인데, 학생운동은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더라고요.(웃음) 한편으론 아버지로서 미안하고, 또 서운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다 이해하면서 살아요. 손녀도 둘 있고, 손자도 하나 있고요."

– 감옥에 6번 수감된 것을 포함해 어떻게 평생운동을 하실 수 있었는지요?

"평소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사회과학 서적을 통해서 신념이 굳어지고, 그게 옳다는 게 세상 살아오면서 증명이 된 것 같고. 그것을 사상으로 간직하게 됐고.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저도, 인류도 행복할 것 같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신념에는 변함이 없어요. 민족 · 민중의 편에 서는 것이 제 신념이지요."

– 그 신념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계급이 없는 사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급이 존재하는 한은, 착취가 존재하는 한은 항상

억압이 있고, 일부의 부를 누리려 하는 쪽이 다수 대중을 희생시켜서 초과이윤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평등세상, 모두가 공유하는 민주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말하자면 휴머니스트이자 사회주의자에요. 사회주의가 실험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좌절이 됐는데요, 자본주의도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발달된 것처럼, 사회주의 제도도 결국 이런 실수와 좌절, 시행착오를 겪고 인민을 위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가면 언젠가 다시 되살아날 거에요. 그러한 시절이 꼭 올 것입니다. 또 곰곰이 철학을 공부해보면, 과거 사회주의 변증법적 철학에서 해명이 안 되던 문제는 해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를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소위 좌파들이 예를 들면, 주체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폄하하는데, 한반도라는 좁은 사회의 사상이 마르크스 사상보다는 덜하다는 자격지심과 자기열등 등이 반영된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정확히 표현하면 좌파적 사대주의에요. 종교도 원래 기독교나 불교라는 것이 사대성을 가지고 있었죠. 철학에 있어서도 서구철학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대주의 철학을 반대해요. 마르크스에게도 배웠듯이 우리가 휴머니즘, 주체사항, 사회주의에서 더 많이 배우는 게 뭐가 문젠가요? 제 신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중의 편에 서는 휴머니즘이고 사회주의에요. 주체사상은 뭐 더 공부를 해야겠지요(웃음)"

– 그래도 요즘 사회운동, 특히 재야 · 통일운동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맞는 측면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80년대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어요. 현재의 제도가 모순이 있기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의 변혁이 그렇게 희망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방황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진전된다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거나, 폐지된다면 새로운 공부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적용되면, 또 그런 것들이 활발히 토론된다면,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재야사회운동 진영이 제도를 바꾸면 희망이 있다고 잘 말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재야사회운동이 뭔가 희망적인 청사진을 못내고 있는 것이죠. 이건 동의하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새로운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문제……."

–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상생과 공존입니다. 이를 위해 북에 대한 미국의 적대 · 봉쇄정책을 제거하는 게 최고의 과제입니다. 민족의 희망과 공존이 그 적대 · 봉쇄 때문에 큰 어렴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한국전쟁과 사상대립 때문에 생채기가 너무 깊거든요. 이것을 치유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힘이 많이 들어요. 같이 해야 해요. 미국의 이북 적대 · 봉쇄 정책 제거하고, 동시에 남북 간에 화해, 협력, 교류로 서로의 생채기를 극복해나가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남북은 서로의 장점을 배워서 더 나은 사회를 기획해야 해요. 그렇게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상호 상생을 지향한다면 분단체제가 궁극적으로 해체될 것이고 평화와 통일이 오고, 이것이 민족 · 민중의 살길이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돌이켜보면, 92,3년도에 운동권들이 많이 전향했는데, 그게 동구권과 소련이 망할 때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운동의 희망으로서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동구권이 있다는 자체로 운동에 활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희망이 안 보이게 됐고, 그러니 사람들이 떠나간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던 이북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자체로도 의의가 있어요. 사회주의 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사회주의라는 제도가 인간애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교육, 의료, 주택 문제'를 어찌됐던 해결해준다는 점이에요. 그것은 인류가 배워야할 유산인 것입니다. 이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적대 · 봉쇄정책만 허물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남북 간에 서로 돕고 상생한다면 이북 사회주의도 분명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또 인류에게 '사회주의'라는 희망의 불씨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요."

최은민 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권오헌 회장님

저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포항건설노조 조합원이었던 고 하중근 열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최은민입니다.

지난 8월 16일 포앙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상경투쟁과정에서 800여명이 연행되는 투쟁 과정에서 함께 연행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지금은 포항교도소에서 재판이 마무리가 안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지와 민족21 11월호를 받아보았습니다. 너무 송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민조노총 중앙에 있으면서 회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정성어린 마음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마도 11월 말에는 담장 밖에서 뵐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찾아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도소 생활은 처음입니다. 어느 분이 민주노총 여성부위원장 중에 최근에 구속된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시던데 아직 아이가 아홉 살이라 이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이곳에서 일제하부터 이 땅의 독립과 해방, 민주화를 위해 고생하셨던 많은 선배님들의 삶을 조금은 몸으로 배우며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허영철 선생님이 쓰신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를 통해서도 다시금 구체적으로 느낄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핵문제로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 우리 민족에게 분단이 또 다시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민중총궐기를 비롯한 하반기 역량들이 이 나라의 통일역량으로 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민주노총도 부족하지만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제가 포항에 8월에 내려왔는데 그때는 폭염으로 숨쉬기가 힘들었는데 이젠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든답니다. 담장이 높아 주변 경관을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올 해 새로 지어진 이곳 포항교도소는 공기가 좋은 곳에 넓게 위치해 있습니다. 세상이 나아지면 이곳에 들어올 사람들이 달라지겠지요 민중과 역사 앞에 자주권을 팔아먹은 놈들이 (이 감옥에) 들어올 그런 세상을 만드는 길에 저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 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저희들에게는 등대처럼 삶의 모범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감히 다짐해 봅니다.

하루에 한 시간 운동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훈련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기쁨이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동안 게을리 했는데 이곳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비록 지금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저를 단련시키는 일이 전부이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게 부여된 임무라 여기며 건강하고 밝게 옥살이를 잘 마치고 더욱 더 씩씩하게 투쟁하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꼭 챙겨 입으시고 건강도

보살피시길 기원합니다.(너무 건방지다 마시고 마지막 드릴 말씀은 역시 건강하시라는 말 밖에 ...) 고맙습니다.

2006년 11월 2일
최은민 드림

이문희 님의 편지

권오헌 회장님께

늘 푸른 열정으로 끊임없이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과 후원회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지들 곁으로 돌아가 다시 힘찬 투쟁을 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2006년 10월 29일 진주에서 이문희 드림

전욱용 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회장님께!

안녕하십니까
그간 별고 없으셨는지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티브이에서 회장님을 자주 뵙고는 합니다.
집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느라 쉴 틈이 없으시리라.....!
존경과 감사의 뜻 전합니다 보내주신 민족21과 후원회 소식지 영치금 소중히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요즘 북핵 문제로 안팎이 불안하고 시끄러운데 제 부족한 소견으로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큰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세계에 진정으로 진리와 정의가 바로 서기를 …!
모든 것은 다 제대로 되리라고…
부족한 글이만 줄입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전욱용 드림

노촌(老村) 이구영 선생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와 분단시대에 민족적 양심으로 가장 치열한 삶을 살아오셨던 유학자이자 사회주의자였고 통일운동의 큰 스승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봉건조선말 의병 전쟁에 앞장섰던 선각된 유학자의 후예로서 일제 식민지 지배에 맞서 항거했고 해방정국에서는 민족정기와 자주통일, 사회정의구현을 위해 사회주의자로 활약하였으며 전쟁 시기를 전후해서 남북으로 오가시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한 길만을 살아오신 일로 22년 옥고을 치르셨는가 하면 출소하신 뒤에는 '이문학회(以文學會)'를 열어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仁)을 보하는 일에 온갖 헌신을 다하셨던 노촌 이구영 선생님께서 평생의 염원인 통일된 조국을 보시지 못한 채 안타깝게 별세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조용하고 온화하시면서 누구에게나 다정다감하셨지만 나라를 갈라놓고 자주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침략적 외세와 민중을 억압하는 권력자와 그리고 진실을 외면한 거짓 지식인에게는 한치의 틈도 없이 단호하셨습니다. 또한 한문학의 대가로서 시, 서문, 서예 등에서 최고 경지에 이르러 이름난 문인, 학자, 사회운동가 등 문하인이 줄을 이었습니다.

또한 86년 동안 살아오신 생애 그 자체가 우리의 현대사로서 그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하면 수많은 항일 독립투사, 혁명가, 통일운동가, 정치인, 문인들과 교우하셨고 놀라운 기억력으로 그 많은 일들과 사람들을 살아있는 역사로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선생님 홀연히 가셨으니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시는 겸손함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냥 묻어두지 않으시는 자상하심, 온화한 몸가짐, 흐트러짐 없는 선비정신의 고결한 모습을 더는 뵈올 수 없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노촌 이구영 선생님께서는 일제 식민지 지배시대인 1920년 충북 제천군 한수면 북노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봉건왕조 중기 4대 가문인, 월사 이정귀를 비롯한 3대째 대재학을 배출한 명문가인 연안 이씨 집안의 13대 종손이시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휘암 이주승 님은 의병전쟁의 물적 후원자이면서 연락책임자였고 숙부 관의제 이조승 님은 최초의 호서의병장 유인석의 종사관으로 호좌창의군에 참여하여 치열한 전장에서 그리고 북( )과 만주까지 가면서 「서행일기」를 쓰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대부의 의병 집안에서 태어나신 선생님은 6살 어린 나이에 시작하여 19살까지 한학을 하시어 대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935년 약관의 나이에 결혼하셨고 1938년 뒤늦게 서울 YMCA 청년회 학교였던 영창학교에 입학 3년 전 과정을 졸업하셨습니다. 이때 명문학교 생도였던 정준섭 등을 만나 교우하면서 사회주의 사상 등 진보사관을 갖게 되셨습니다.

1942년 황한의학원에 입학 수학하면서 고향 사람들과 함께 항일운동단체 '월악동지회'를 조직 활동하셨고 이때 『인류사회발전사』 일본인 가와카미 하지메가 쓴 『빈보모노가다리(가난한 이야기)』 등 신사상과 관련된 책을 보시면서 유학자이면서 사회주의자로 변신하셨습니다. 1943년 '독서회사건'으로 투옥, 모진 고문을 당하고 1년 동안 수형 생활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광복이 되자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김구, 여운형, 박헌영, 이강국, 이관술, 김삼룡, 김태준 등 거물급 정치인, 혁명가, 문인 등을 만나기도 하셨다 했습니다. 1948년엔 동양의학전문학교 강사를 역임하셨고 1949년에는 고향에서 면장살해사건과 관련 다시 구속되어 2개월 옥고를 치르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자 성시백 선생의 김승원 씨를 도와 활동한 일로

이른바 성시백 사건과 관련 6 · 25 직전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밀활동과 투옥이 이어지는 동안 1950년 6 · 25전쟁으로 서울이 인민군에 의해 해방되자 선생님께서는 "이제야 통일이 되는구나." 하며 감격하셨고 이제야말로 어깨를 펴고 살게 되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이때 서울에서 김승원 등과 함께 정보수집 사업 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서울에서 활동은 짧았습니다. 이른바 유엔군의 대반격으로 선생님은 9월 23일 북으로 일시적 후퇴를 해야 했습니다. 후퇴할 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발급한 지도원 증명서를 갖고 있었기에 미아리-황해도 수안군-평양-평남 사창원-평북 강계까지 가시는 동안 관련기관으로부터 편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후퇴길에서는 미군기의 폭격으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이같은 고된 길에서 폐결핵에 걸려 강계인민군 야전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환자 신분이면서도 같은 환자를 교육하는 '회복학교' 교사로 5년 동안 일하셨고 퇴원 후에는 강계시의 도서관 책임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김병휘, 노일환 등의 권유로 남쪽 출신(북으로 후퇴한) 여성과 1955년 결혼을 하시어 동신군에서 가정을 꾸렸다고 했습니다. 이때 아드님 이만훈(1955년생) 따님 이동훈(1958년생) 남매를 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처럼만의 안정된 생활도 오래 이어질 수 없는 민족적 현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58년 7월 중앙당 연락부로부터 소환을 받았고 한 가정보다는 조국통일사업의 엄중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남쪽으로 내려 오셨습니다. 군산에서 서울로 다시 부산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만나려던 사람은 못 만나 북으로 올라가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 때 하필이면 일제시대 선생님을 잡아 가두었던 바로 그 형사를 만나게 되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1, 2심에서 무기 대법원 확정으로 기약없는 독방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감옥생활은 다른 장기 구금 양심수들과 다름없는 지옥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벌방에 들어가면 손이 뒤로 묶여 개처럼 기어서 밥을 먹어야 했고, 대소변도 옷을 입은 채 볼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또한 "독방-소리가 없고 줄지어 있는 긴 복도 간수 발자국 소리뿐 한 뼘 남짓한 창 그 햇빛이 반갑고 나뭇잎 흔들리고 날으는 새를 보는것이 신기하고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느낀다"라고 회상하셨습니다.

1975년부터 그 비좁은 곳에서 호서의병사적(湖西疑兵事蹟)을 번역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치열했던 옛 의병들의 혼을 널리 알리기 위한 뜻이었다고 1993년 책을 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재도 아닌 곳 종이도 필기구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아우 이철영 님께서 보내준 숙부 이조승 님의 『서행일기』 등을 변역하신 것입니다. 이때 함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긴급조치 등으로 갇혀 있던 신영복, 심지연 교수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면서 교감(交感)도 하고 윤서(輪書)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선 1980년 5월 가석방으로 22년 만에 출소하자 곧 인사동에 이문학회를 열고, 『연행만조』(수필집), 『한겨울 매화향기에 마음을 씻고』(한시집), 『산정에 배를 메고』(대담자서전) 등의 저서와 『호서의병사적』, 『이강년선생문집』 등을 번역하시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예작품전을 인사동에서 열었고 올 3월에는 집안에 전해온 고문서와 의병독립운동 자료 6,000여 점을 제천의병도서관에 기증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가 유별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만큼 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선조 봉건사회, 일제식민지사회, 6 · 25전쟁 남북의 이념대립, 사회주의사회와 22년간의 감옥 생활, 오늘의 자본주의사회 등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만 후회는 없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버렸다거나 내 인생을 되찾고 싶다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돈만 벌다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선생님 86년은 당신 의지대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도 가장 아쉬워하신 일은 북녘에 두고 온 가족들을 찾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통일 원로들의 평양 방문 때 가시려 했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무척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가셨지만 남기신 업적은 길이 빛날것입니다.

선생님 장례는 '이문학회장'으로 하여 바로 '이문학회' 노제를 지내고 충주시 상모면 사문리 선영에 모셨습니다. 고이 잠드소서.

비극적 서사의 땅, 강화도를 찾아서

이현근 | 회원

◀ 어재연 장군 이하 전 전군사가 장렬하게 전사한 광성보에서 묵념을 올리는 회원들.
▲ 석모도로 들어가는 배 위에서…

서울을 출발해서는 햇볕이 제법 있었는데 강화도로 접어들자 날씨가 흐려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배낭 속의 우산이 생각났다. 일기예보가 들어맞는 것일까, 서해안 도서 지방에 돌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다음날 아침은 기온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뉴스. 그러면서 강화도는 서해안 도서 지방에 포함되는 섬일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내륙과 섬을 잇는 짧은 다리에 강화대교라는 표현이 좀 허망도 한데, 섬이라면 뭍에서 제법 떨어져 본토의 사직과 거리를 두고 있어야만 할 것 같아서였다. 나라의 시조가 하늘에 제사를 모시려고 제단을 쌓았던 신성한 섬, 가장 많은 외세의 침략을 맨 먼저 받아냈고 그 비극이 현대까지도 이어진 아이러니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상상하긴 쉽지 않았다. 읍내를 벗어나 고인돌을 둘러보고 곧바로 석모도행 페리호를 타기 위해 출발한 버스가 갑자기 탁트인 벌판 한복판으로 접어들었다. 섬이 그렇게 너른 들판을 숨기고 있는 것에 다소 놀랐다. 가을걷이가 끝난 수킬로 미터의 들판을 산들이 빙 둘러 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산 정상에서는 뻘과 바다가 내려다보일 터. 그러나 이곳에서 삶을 이어갔던 순박한 사람들이 이념전쟁의 희생자가 되었던 장소들을 숨기고 있다는 안학섭 선생님과 강화양민학살희생자 유족회 서영선 회장님의 증언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낮게 내려앉은 저 하늘이 그때의 하늘일까 하는 상상. 바다에도 하늘은 낮게 내려앉았다. 뿌옇게 흐린 섬들과, 종일 카페리 뒤로 관광객들이 던지는 새우깡을 받아먹는 게 전부인 갈매기들 뒤로 하고 석모도에 도착했다. 보문사 중턱 눈썹 바위 아래 마애미륵불 앞에서도 아래의 바다는 흐린 빛깔로 섬들을 감추고 있었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기념사진을 찍는데 날이 벌써 어두워졌는지 카메라 후레쉬가 터진다. 총총히 사백여 계단을 내려오니 절 앞에 늘어선 가게들 불빛이 밝다. 바닷가라고 시골 아낙들이 절 들머리에서 좌판을 벌이고 꽃게, 젓갈, 마른 새우 같은 것들을 팔고 있었다. 한 가게 앞에서 벌써 자리를 잡고 시끌벅적한 김호현, 안 목사 일행과 어

울려 마른 새우무침, 밴댕이회 무침, 부침개 안주로 탁주 한 잔씩 하고 근처에 있는 숙소로 향했다.

저녁식사 마치고 노중선 선생님의 북한 핵실험과 최근의 대내외 상황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한반도에 긴장을 조장하고 그것에 기대어 먹고사는 듯한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한시라도 정신을 놓지 말고 민족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데 작금의 정파 간, 이익집단 간 사분오열된 대응은 부시가 들고 있는 마리오네트 인형 같은 생각이 든다. 크든 작든 전쟁이 나면 남북한 모두 승자가 될 수 없는데도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이 이득을 볼 것처럼 강자 쪽에 붙어서 도와달라고 기를 쓰는 형국이라, 열강들이 더욱 바라는 터다. 전시작전권도 아직 우리가 갖기엔 위험하니 더 갖고 있고, 없는 놈이니 아예 더 조이면 항복하거나 망할 거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 군함이 한 세기도 전에 이 섬에 와서 시비를 걸고 아예 상대도 되지 않는 무기로 대항한 조선을 무참히 유린했던 역사를 과거지사라고, 6·25 이후 그들은 우리의 변함없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강의 후에 뒤풀이가 2시 넘게까지 이어졌다. 식당주인의 후한 인심과 바닷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해산물들, 해물탕, 병어회, 농어회, 그리고 가을의 풍성한 과일들, 민가협 어머님들이 준비해 오신 부침개를 안주로 술잔이 오가고 강의에 이어진 대화들이 오가고, 그간의 정담들이 작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비록 슬픈 역사를 찾아 왔지만 기행 첫날밤은 축제였고 노래와 웃음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섬을 찾아 온 진정한 의미를 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밖의 하늘은 아직도 잔뜩 흐리고 바람이 심해서 금방이라도 비가 퍼부을 것 같았고 어둠 속에서 바다는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식당 앞 감나무 꼭대기에 몇 개 남은 선홍색 까치밥들이 아침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개었고 바람도 잦아들었다.

벌써 아래 바닷가를 산책하고 사진을 찍는 부지런한 일행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석모도를 빠져나와 다시 강화도에 도착했다.

김포와 강화도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을 따라 있는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용두돈대를 차례로 답사했다. 초지진의 성벽 뒤에 있는 소나무는 침략자들이 쏘았던 포탄 흔적을 간직한 채 살아서 당시의 역사를 말해주고, 광성보에서 용두돈대 가는 길에는 신미양요 당시의 침략자들이 찍었던 처절하게 파괴된 조선군 진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다.

광성보를 빠져나와 왼쪽으로는 마니산 서남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는 강화해협을 끼고 고려궁터로 향했다. 고려궁터 바로 아래가 강화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서영선 회장님의 비극적 가족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다. 초등학교 교장이셨던 아버지에 이어 할머니가 학살되었고, 어머니마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정부주도 우익단체인 향토방위 특공대에 의해서 끌려가던 기억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히 증언해 주셨다. 그 이후 반세기 동안 4남매가 겪은 유랑과 고난은 한국 현대사 이념전쟁에서 희생된 가족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반세기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고 삭혀야 했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서 여자의 몸으로 호랑이 굴에 단신으로 뛰어들었다. 마지막 기행지도 서영선 회장님의 어머니를 기리는 추모시비가 있는 옛 강화대교 바로 아래의 갑곶 나루터였는데 지금은 갈대로 덮여 있지만 그 당시 무수한 사람들이 갯벌에서 희생당했고 파도에 쓸려서 바다 속에 수장 당했다고 한다. 그 중에 그녀의 어머니도 있었을 것이다. 학살자들은 아직까지도 입을 다물고, 희생자들의 가족 역시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그녀를 안타깝게 한다고 한다.

어제의 흥겨웠던 기억과, 쉽게 지워지지 않는 신미양요 당시의 처참한 사진들, 그리고 억울한 영혼들이 희생됐던 장소들이 혼재된 어지러운 백일몽 속에서 깨어났을 때는 버스는 이미 서울에 도착해 있었다. 날씨는 떠나기 전보다 추워졌고 일요일 오후의 신촌은 '뜻 모르는' 무심한 젊은이들로 북적거렸다.

2006회원 역사기행지 강화에 대해

함께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이번 기행지였던 강화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기행팜플렛에 실었던 내용을 옮겨 싣습니다. -편집자 주

기행 일정표

❖2006년 11월 4일(토)❖

14:00	신촌로터리 그랜드마트앞에서 집결
14:30~15:30	강화대교 옆 갑곶나루터 천주교 순교성지
15:30~16:00	한국전쟁시 양민학살 현장 돌아봄
16:00~16:20	강화지석묘-(도로에서 가까이 위치함)
16:40~17:00	외포리 선착장에 도착. 석모도행 여객선 승선
17:30~18:10	석모도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숙소에 도착
18:10~19:00	여장을 풀고 방 배정 및 자유시간
19:30~20:30	저녁 식사
20:30~21:00	휴식
21:00~22:00	강의
22:00~	뒤풀이

❖2006년 11월 5일(일)❖

06:30	기상
07:00~08:30	보문사에 오름
08:30~09:30	아침식사
10:00~10:30	석포리 선착장
10:30~12:00	초지진(해안도로 주행)
12:00~13:00	광성돈대의 광성보
13:00~13:30	읍내로 이동
13:30~14:30	점식 식사(우리옥)
14:30~15:30	고려궁지
15:30~16:30	갑곶돈대 강화역사박물관 관람
17:00	강화도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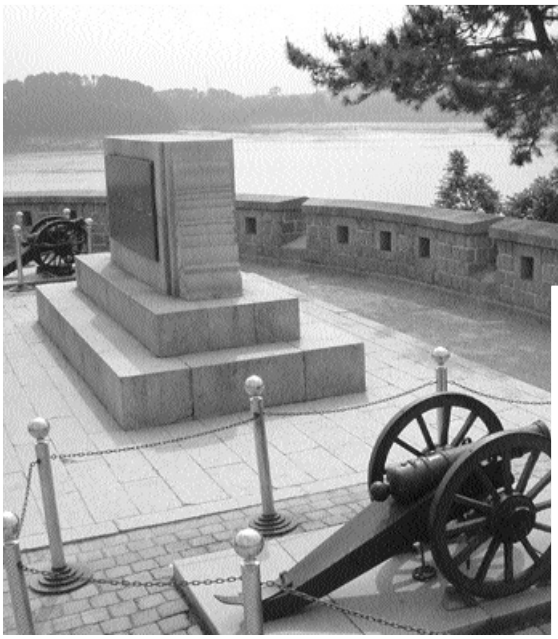
강화도는 반도의 중부를 흐르는 한강의 관문이자 한강, 예성강 임진강의 3대 하천 어귀에 있다. 그런 지리적인 특성으로 강화도는 우리 민족이 수난을 겪을 때마다 그 혼란의 한 가운데서 영욕의 땅이 되었다. 현재 우리가 강화에서 볼 수 있는 유형 무형의 문화재는 그런 저항의 역사적 산물로서 더없이 중요하다.

강화는 본래 김포반도에 이어진 내륙이었으나 오랜 세월의 침강으로 내륙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뒤 낙조봉 고려사 혈구산 마니산 등 해발400여 미터의 산이 형성되면서 여러 개의 구릉으로 둘러싸인 섬이 되었다. 그 뒤 한강과 임진강의 퇴적작용으로 다시 김포반도와 연결되었으나 염하(강화해협)가 한강에서 분류되어 머리 부분을 침식, 물길을 이루면서 하나의 섬으로 형성되었다고 한다.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그 유적이나 유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고인돌 무덤이다. 선사시대 막강한 지배층을 형성했던 청동기인들이 고인돌 무덤이 하점면 장정리 등 강화 전역에 100여기 산재해 있다. 강화의 서쪽은 삼국시대에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다.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으로 해전과 육전의 요충지였고 고구려는 이곳에 '혈구군'을 설치하기도 했다 중국과 교류 통로가 없었던 신라 역시 이곳을 자주 넘봐 삼국간의 잦은 국경선의 변경 현장이 되어 누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느냐가 최대 관건이었다.

고려 때에 강화는 몽고의 침탈 대상이 되었고 고려의 고종은 강화로 천도(1232년), 몽고와 39년간의 오랜 항전을 치루었다. 그 수난 속에서 찬란한 유물인 팔만대장경이 주조되었으며 당시의 고려 궁터가 강화읍에 남아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서는 두 차례의 호란으로 전선이 형성되고 이후 군사요새로 무장된다. 인조는 정묘호란(1627년)을 겪으며 이곳으로 피란했고 후금과의 강화도 조약을 강화에서 맺었다. 그러나 병자호란(1636



년)을 당해 강화는 완전 함락되고 만다.

효종은 북벌계획을 추진하면서 이곳에 진과 보를 설치, 숙종 때까지 12진, 보와 53돈대, 9포대 등 군사력 강화가 이루어진다.

근대에 들어서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운양호사건들 서구제국 열강들이 쉼없이 넘보던 곳이었다. 한국전쟁 후에는 휴전선이 강화 북쪽을 지나가면서 섬 북쪽은 모두 민통선 지역으로 되어 사람들의 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한 분단의 살아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현재는 1995년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어 관광산업이 조성되면서 섬 전역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도시인들에 의해 마구 어질러지고 있는 한편 천혜의 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화도사람들이 의미있는 역사의 고장으로 보존하려는 노력도 가열되고 있다.

갑곶진

갑곶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의 입성지이며 고려때 몽고군과 고려정권이 강화협정을 맺던 역사수난의 현장이다. 이곳의 수난사는 甲串이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데 구전에 의하면 몽고전란 시절 몽고의 한 장수가 강화를 공략하고자 했을 때 강화의 주변이 넓은 갯벌로 좀처럼 강을 할수 없었던 몽고군으로서는 도강이 쉽지 않자 강화해협 중 이곳의 강폭이 가장 좁아 '갑곶을 꿰어 이으면 가히 건널 수 있다' 고 말한 것에 연유하였다 한다. 하지만 삼국시대 이전에도 이곳을 '갑비고차' 라고 불렀다고 하니 이곳의 수난사를 부각시키려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견해도 있다.

부근리 고인돌

강화대교를 지나 강화읍내에서 그리 멀지않은 하점면 부근리에 들어서면 길 옆의 밭 가운데 서있는 거대한 고인돌이 보인다. 이 고인돌은 길이 7.1미터 너비 5.5미터에 50톤의 무게의 돌이다. 이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막강한 지배층의 족장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3천년 전에 청동기를 제작해 쓰던 사람들이 만주와 몽고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들은 목축과 농사짓는 기술이 발달해 있었고 잉여농산물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들은 계급사회를 이루어 족장이나 지배자가 죽으면 많은 공력을 들여 무덤을 만들었다.

이때 만들어진 무덤은 고인돌 독널 독무덤 등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구별되는 고인돌 무덤이다. 북방식 무덤은 4개 혹은 2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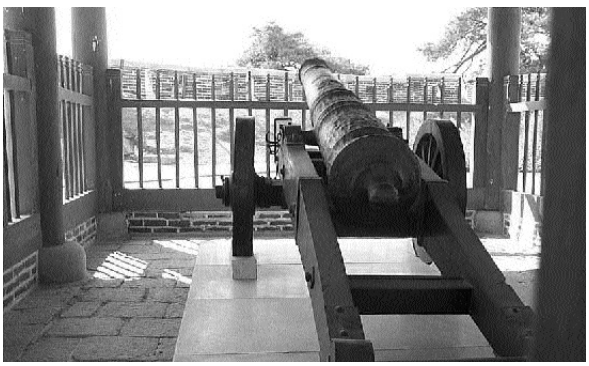
높은 굄돌을 세운 위에 하나의 평평한 덮개를 얹는데 시신이 매장되는 돌방을 지상에 노출시킨다는 것이 특징이다. 강화 부근리와 평안남도, 황해도 은율, 재령강 황주천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고인돌의 형태가 대개 긴 쪽을 정면으로 삼아 남쪽을 향하고 있어 이미 방위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신을 안치할 때 부장품을 함께 묻기도 한 것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보문사

보문사는 내가면 회포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석모도 삼산면 매음리 낙가산에 자리하고 있다. 일찍부터 관음도량으로서 기도하는 곳으로 이름난 보문사는 신라 선덕왕 4년(635)에 세웠졌다고 한다.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이곳으로 와서 절을 세운 후 관음보살의 성스러운 기운이 서린 곳이라 하여 산이름을 낙가(洛迦-관음보살이 살고 있는 남해의 섬), 절 이름을보문(普門-광재무변한 서원을 실천하는몸과 場)이라 했는데 모두 관음보살을 상징하는 이름들이다. 보문사에는 낙가산 중턱에 1928년에 조각한 마애미륵불 좌상이 있으며 이 절은 사시사철 절경을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초지진(사적제225호)



1716년(숙종42) 강화해안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진으로 병인, 신미양요와 일의 운양호 사건 등 제국주의 침입에 맞서 줄기차게 싸워온 격전지다.1973년 성곽을 복원했다. 초지진에는 현재 조선군이 사용했던 대포가 전시되어 있다.

초지진의 잘 쌓아진 예성벽과 푸른 잎을 피워내는 노송에는 지금도 외세가 쏘아대던 포탄의 흔적이 남아있어 미국 및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맞서 격렬하게 싸웠던 전투상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덕진진(사적 제226호)

덕진진은 강화해협을 지키기 위해 광성보와 같은 시기에 축성되었다. 현종7년(1660) 강화유수 서필원이 참사를 없애고 별장을 두었으며 1677년에 만호로 격상하여 배치하였다.

덕진포대는 통진반도에 툭 튀어 나온 덕진포대와 함께 강화해협을 지키는 강화 제일의 포대였다. 덕진진의 돈대 아래에는 '海門防守他國船愼勿過(이곳은 출입금지구역이므로 타국배들은 지나지 말라)라는 비문이 있는데 원래 강화해협은 역사적으로 외국배의 출입이 금하는 군사제한 구역이어서 해협 입구에 경고비문을 두었던 것이다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양헌수의 부대가 야음을 틈타 이 진을 거쳐 정족산성으로 들어가 프랑스 군대를 격파하고 1871년 신미양요 때는 로저스가 지휘하는 미 극동함대와 격전이 전개된 곳이다.

이 진의 성첩과 건물은 당시 모두 파괴되어 폐허처럼 된것을 1977년에 완전히 복원하였고 당시 조선군이 사용했던 홍이포를 모조하여 전시하였다.

광성보(廣城堡 사적 제227호)

고려시대에 축성한 외성을 1618년(광해10년)에 보수하고 1656년(효종7년)에 창설한 보이다. 이곳은 신미양요 대 가장 격렬한 격전히로서 1871년 4월 23일 미국의 로저스가 통상을 표방하면서 함대를 이끌고 1230명의 병력으로 침입, 상륙부대가 초지진, 덕진진을 점령한 후 광성보마저 포위되는 등 가장 격렬한 격전지였다. 조선국 지휘관 어재연장군 이하 전 군사가

열세한 무기로 용감하게 싸웠는데 포탄이 떨어지면 칼과 창으로 맞서 싸우고 그것도 떨어지면 돌과 주먹으로 싸워 한 사람도 물러서지 않고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광성보에는 그날의 현장을 되새기게 하는 어재연 장군 형제의 순절비와 무명용사의 묘사 있다. 전쟁이 나자 양반들은 도망친 반면, 극소수의 애국적 용사들은 이름조차 없어 7개의 봉분으로 나누어 묻고 신미순의총(辛未殉義塚)이라 하였다.

신미순의총에서 더 들어가면 바닷가로 쑥 내밀며 튀어나온 용두돈대(손돌목돈대)가 나온다.

광성보에서 소속된 돈대인데 용머리 같아해서 이름 붙은 용두돈대 그 도드라짐 만큼이나 신미양요 때 격전을 치른 곳이다.

고려궁터

몽고의 침략으로 고려왕조는 1232년(고종19년) 6월부터 1270년(원종11년)까지 39년간 강화에서 피난생활을 했는데 이때 사용하던 궁궐터가 지금의 고려궁터이다. 실제로 궁궐완성은 1234년에 되었는데 규모는 작으나 송도궁궐(연경궁)과 비승하게 만드는 한편 뒷산도 송악이라 고쳐 불렀다. 또한 몽고군 재침에 대비, 마니산 남쪽 기슭에 이 궁을 세워 대비하였다. 그러나 원종 11년에 몽고와의 굴욕적인 화의가 성립되어 도읍을 개성으로 다시 옮기게 되었는데 이 때 화의에 반대하여 항쟁을 계속했던 군사들이 후에 삼별초의 난을 일으키게 된다.

애초 고려궁은 행궁, 이궁, 가궐 등의 여러 궁궐과 정궁이 있었던 너른 터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고려궁터의 정확한 범위와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선 인조(1631년)때는 옛 궁터에 행궁을 건립하고 전각과 강화유수부, 규장외각 등을 세웠으나 병자호란 때 함락되고,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 완전 소실되는 등 수난의 역사가 되풀이 되었다.

외규장각은 크고 작은 전란으로 귀중한 서책의 소실을 우려한 나머지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모아놓은 왕실기록보관소였는데 프랑스군이 국보급 책들 가운데 약 200여종을 털어가고 나머지 800여종과 강화부의 궁전들, 그리고 외규장각까지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 그렇게 앗아간 도서들은 현재 프랑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다시 세워진 강화의 외규장각은 내용물을 잃어버린 채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지도 못하고 고려궁터 담장 밖에 쓸쓸히 서있다.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06년 회원역사기행 결산 ※

❖수입❖

회비

60,000원 회비 : 1,080,000
50,000원 회비 : 450,000
40,000원 회비 : 120,000
30,000원 회비 : 30,000

찬조금

김지영 : 200,000
김호현 : 200,000
조명희 : 100,000
탁무권 : 100,000
김길자 : 50,000
이영 민가협상임위장 : 사과1, 감1 상자
김희선 회원 : 귤 2상자

❖지출❖

차량운행비 : 550,000
숙소 : 450,000 주차비 : 2,000
저녁 : 222,000 아침 : 185,000 점심 : 250,000

뒷풀이

해물탕 : 140,000
맥주/소주 : 72,000
막걸리 : 24,000
야채 및 술안주 : 138,820 간식 : 33,000
봉사료 : 40,000
입장료 : 71,000
여객선 승선료 : 87,000
자료집 : 50,000

합계 : 2,315,020

열여덟번째

인권콘서트

■일 시 : 2006년 12월 9일(토) 오후 5시
■장 소 : 세종대 대양홀
■문 의 : 민가협 (02-763-2606)
■출 연 : 정태춘 박은옥 / 김종서
크라잉넛 / 전인권 외

나와는 사상이 다르다고,
국적이 다르다고,
신분이 다르다고 배척해온
우리 안의 뿌리깊은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어뜨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있어 아름다운 세상.
그 아름다운 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006년 회원송년 모임

2006년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을 폐지하고
양심수석방과 후원을 위한
한 해 사업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어느때 보다도 자주통일과 반전평화 등
연대·연합 사업을 힘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같은 지난한 해 활동을 서로 격려하고
새해 사업도 다짐하며
회원들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한
송년 모임에 모두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2006년 12월 10일 일요일 낮 12시
어디서 새서울주물럭
지하철 5호선 세종문화회관 뒤편
전화 02-736-5797

북녘어린이 콩우유보내기운동에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합니다.

양심수후원회의 특별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개중인
'북녘어린이콩우유보내기운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핏줄 한민족인 남과 북은 서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후원계좌 : 제일은행 159-10-001411
■예 금 주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그동안 양심수후원회 사무실 팩스가 고장나
전화로 문서를 주고받지 못하여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회원들에게
팩스를 후원해 달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방학진 님께서
팩스를 사무실로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작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듯이 뜨겁고 고마운 지원은
후원회에 크나큰 격려와 힘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마음으로
방학진 님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FAX : 02-888-4470 ■E-mail : yangsimsu@hanmail.net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874-4063)

성 명		예금주	
연락처		거래은행	
예금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 소			
후원금액	5천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기타( )		

2005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6년 11월 10일 현재 총 113명 | 민가협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가미결
김성재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포항건설노조 파업관련	06-10-02	집시			포항교 3075	미결
최규만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포항건설노조 파업관련	06-10-02	집시			포항교 3075	미결
김종덕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관련	06-08-21	공동공갈			수원구 310	미결
임치진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관련	06-10-13	공동공갈			수원구 340	미결
이광일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관련	06-09-30	공동공갈			수원구 350	미결
조준행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관련	06-08-21	공동공갈			수원구 330	미결
이영록	노동자	건설노조(경기)	노조활동 관련	06-08-21	공동공갈			수원구 308	미결
이길우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6	집시			대구구 91	미결
신현범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7	집시			대구구 72	미결
문강호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7	집시			대구구 99	미결
이성우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6	집시			대구구 96	미결
김은수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6	집시			대구구 71	미결
오상룡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2	집시			대구구 70	미결
이상경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2	집시			대구구 73	미결
조기현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6-15	집시,공갈,갈취			대구구 79	미결
문정우	노동자	건설노조(대구경북)	6.1 총파업	06-07-06	집시			대구구 68	미결
이옥선	노동자	건설노조(충남)	노조활동 관련	06-06-16	업방			천안구 5057	미결
하동현	노동자	건설노조(충남)	노조활동 관련	06-06-16	업방			천안구 5554	미결
김봉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5	미결
김상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45	미결
진덕원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4	미결
박득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8	미결
정갑도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2	미결
최진동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0	미결
권일영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39	미결
김종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37	미결
김용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37	미결
김학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 36	미결
김명선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4	미결
심진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3	미결
김병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2	미결
정승종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1	미결
장재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8-14	집시			포항교 3068	미결
이지경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3년6월	항소중	대구교 29	미결
김중우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3	미결
권영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27	미결
최영규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대구구 26	미결
신수복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5	미결
박성웅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1년6월		대구교 24	미결
김영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3	미결
이정모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2	미결
김윤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1년6월	항소중	대구교 21	미결
정은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6월	항소중	대구교 30	미결
지갑렬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8-23	업방,폭력,집시			포항교 3072	미결
박웅희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1	미결
김영주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8-31	업방,폭력,집시			포항교 3073	미결
진남수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하중근 사망규탄집회	06-08-17	집시			포항교 3071	미결
유기수	노동자	건설연맹	8.9 노동자대회(포항)	06-08-14	집시			포항교 3069	미결
강상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12-29	업방,폭력	10월+8월	2007/06	부산교 874	기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폭력	1년6월+1년	2008/01	대구교 52	기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4-08	업방,폭력	1년6월+1년	2007/10	대구교 86	기결
이문희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크레인시위	05-05-17	업방,폭력	1년6월	2006/10	진주교 6	기결
이종배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대추분교행정대집행 항의	06-10-13	특공,치상			평택구 210	미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 날짜	적용 법규	형 량	만기 일	수감 지	기미결
홍진성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항의	06-10-13	특공치상			평택구 220	미결
김문영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항의	06-10-13	특공치상			평택구 207	미결
박병화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항의	06-10-13	특공치상			평택구 219	미결
김영성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파업	06-10-17	업방,폭력			수원구 337	미결
장옥기	노동자	덤프연(광주전남)	파업	06-09-07	업방			순천교 467	미결
박주승	노동자	민주노총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 관련	06-10-16	집시,특공방			순천교 109	미결
최은민	노동자	민주노총	하중근 사망규탄집회	06-08-17	집시			포항교 40	미결
이태영	노동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경기) 활동관련	06-09-14	공동공갈			수원구 317	미결
김재진	노동자	민주노총(광전)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파업	06-08-09	집시법			순천교 408	미결
이영도	노동자	민주노총(울산)	8.9 노동자대회 (포항)	06-08-14	집시			포항교 3066	미결
김용직	노동자	민주노총(충북)	하이닉스 노조 집회 등	05-06-13	집시,특공	1년6월	2006/12	청주교 792	기결
황우찬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하중근 사망규탄집회	06-08-17	집시			포항교 3070	미결
김병일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6	미결
송무근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07-13	업방,폭력	2년	항소중	대구교 47	미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관련	05-02-22	명예훼손,정통법	3년+2월+6월	2008/10	영등포교 13	기결
이민숙	노동자	전교조	교원평가 공청회 관련	06-10-20	폭력			서울구 52	미결
이성대	노동자	전교조	교원평가 공청회 관련	06-10-20	폭력			서울구 82	미결
고진오	노동자	전교조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06-10-20	폭력			서울구 292	미결
강성철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06-09-19	폭력			영등포구 3402	미결
변외성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2006-09-19	폭력			영등포구 3403	미결
박상길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2006-09-19	폭력			영등포구 3404	미결
연제일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2006-09-19	폭력			영등포구 3405	미결
엄기준	노동자	㈜유성기업 노조	노동자대회(11.9)	2003-12-10	집시,폭력	1년6월+2년6월	2007/12	대전교 2999	기결
오병용	노동자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조	복직촉구	2006-09-19	공방			청주교 204	미결
하명학	노동자	하이닉스 사내하청노조	복직촉구	2006-09-19	공방			청주교 428	미결
양순직	노동자	하이닉스 사내하청노조	복직촉구	2006-09-19	공방			청주교 491	미결
임헌진	노동자	하이닉스 사내하청노조	복직촉구	2006-09-19	공방			청주교 189	미결
송대균	노동자	하이닉스 사내하청노조	복직촉구	2006-09-19	공방			청주교 204	미결
김태윤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파업	2006-09-19	업방			울산구 36	미결
오지환	노동자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부	출입금지 가처분	2006-07-17	민사소송법	6월	항소중	대전교 6916	미결
권수정	노동자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부	출입금지 가처분	2006-07-17	민사소송법	8월	항소중	대전교 70	미결
김준규	노동자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부	출입금지 가처분	2006-07-17	민사소송법	6월	항소중	대전교 6734	미결
박정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노조	대량해고반대 농성	2005-11-05	특공치상	1년6월	2007/05	순천교 1695	기결
홍종선	노동자	화물연대(제천)	파업	2006-09-28	업방,집시	6월	항소중	충주구 251	미결
박경연	노동자	화물연대(충청강원)	파업	2006-09-28	업방,집시	1년	항소중	충주구 249	미결
박호진	노동자	화물연대(충청강원)	파업	2006-09-28	업방,집시	6월	항소중	충주구 250	미결
김지태	농민	대추리 주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2006-06-05	업방,집시,특공	2년	항소중	평택구 201	미결
최재영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3-06	병역법	1년6월	2007/09	진주교 1204	기결
전욱용	재야	개인	북한방문	2004-11-18	국보	3년6월	2008/05	광주교 5009	기결
김훈태	재야	교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5-22	병역법	1년6월	2007/11	논산구 370	기결
최희정	재야	민권연구소	이적표현물	2006-08-18	국보			서울구 241	미결
김영진	재야	민주노동당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7	의정부교 1723	기결
정민군	재야	민주노동당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항의	2006-10-13	특공치상			평택구 205	미결
문상현	재야	사회당(서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7-19	병역법	1년6월	2006/12	청주교 844	기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출소자모임	청송감호소 처우항의	2004-06-20	특가법	1년+6월	추가기소	춘천교 451	미결
노수희	재야	전국연합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항의	2006-10-13	특공치상			평택구 204	미결
이용석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8-18	병역법	1년6월		인천구 2232	미결
김태훈	재야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5-17	병역법	1년8월		서울구 1494	미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3년		안동교 15	기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5-03	화염병,치사	6년		장흥교 11	기결
김학명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3년		홍성교 200	기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치사	2년6월	상고중	서울구 20	미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6-08	폭력,화염병	3년		경주교 500	기결
오정록	재야	평화네트워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2-07	병역법	1년6월	2007/08	서산구 103	기결
고동주	학생	카툴릭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6-09-21	병역법	1년6월	보석취소	영등포구 2305	미결
장민호	재야	개인	회합통신사건	2006-10-24	국보			수서서	미결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회합통신사건	2006-10-24	국보			서초서	미결
손정목	재야	개인	회합통신사건	2006-10-24	국보			강남서	미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회합통신사건	2006-10-26	국보			방배서	미결
이진강	재야	개인	회합통신사건	2006-10-26	국보			수서서	미결

01

남과 북은 2일 오전10시 판문점 북쪽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군사 실무회담수석대표접촉을 갖는다고 국방부가 발표하다. 북측 제의로 열릴 남북군사접촉은 지난 5월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 결렬 이후 5개월 만이다. 남측에서는 문성묵 남북군사실무회담 남측대표(육군대령)등 3명이고 북측에서는 단장대리인 박기용 상좌 등 3명이 회담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다.

02

조순덕민가협 전상임의장님과 어머님들이 낙성대 '만남의 집'에 오셔서 대청소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선생님들을 대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과 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오충일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 76명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팽성주민대책위원회 김지태위원장에 대한 석방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에 22일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추가 증거제출을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수원지법에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 이는 김지태위원장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날것에 대비 출소를 늦추려는 속셈으로 추정되고 있음

서울역 광장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한미FTA중단촉구범국본대표단 귀향인사 캠페인 및 기자회견' 열다 주재준 범국본 공동상황실장 사회로 오종렬 상임공동대표. 허영구민노총부위원장 등 결의발언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회장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하다.

서울역 광장에서 한총련과 사회단체 공동으로 '한총련에 대한 불법조작 수사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장송회 한총련의장 진행으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여는 말.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권오창 실천연대공동대표의 규탄발언 장송회 한총련의장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었습.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은 성명을 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연구부분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다'고 천명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평양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보도하다. 성명에서는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 책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방어적 대응조치로서 핵 억제력 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인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며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고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과 핵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언제나 핵보유국으로서 핵전파방지 분야에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성실히 리행할 것'이며 '조선 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하다. 이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일장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라고 발표하다.

04

이북의 핵시험계획 발표에 대해 정부는 안보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의 핵시험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파기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분명히 재확인하며 핵실험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다.

김호현 양심수후원회부회장이 추석을 앞두고 낙성대 '만남의 집'에 쇠고기를 많이 사와, 여러 차례 큰잔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5

추석을 앞두고 통일원로들이 망우리 공원묘지에서 최백근 선생님을 참배하다. 최백근선생은 4.19혁명 뒤 진보정당인 사회당 창당에 헌신했으며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체포되어 군사재판에서 사법살인을 당하셨음. 이종린 전창일 진병호 황금수 서상호 김영옥 박정숙 김선분 류종인 권오헌님이 함께 하다.

06

민족명절 한가위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07

양심수후원회 전지도위원이신 박용길 장로님댁과 유기진 선생님께 추석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양심수후원회의 버팀목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09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예고한 대로 핵시험을 했다고 밝힌 것을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보도하다. 조선중앙통신은 핵시험 발표 보도문은 다음과 같음 "온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 나가는 벅찬 시기에 우리 과학 연구 부분에서 주체95(2006년)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핵시험은 100%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 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 핵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회 등 사회단체 공동으로 '아베총리방한규탄기자회견'을 열고 과거범죄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피해보상을 촉구하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회 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일본군 강제납치 피해자 길원옥할머니 등의 일본의 과거 범죄와 대북적대정책. 역사왜곡 신사참배 등 규탄 발언과 윤미향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10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북핵시험과 관련 통일연대 주최로 "미국은

대북제재중단하고북미대화에 즉각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이규제 범남본의장의 여는 말 이승호 한청의장. 장수경 반미여성회진행위원장 등 촉구발언과 한상렬 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낭독이 있었슴.

외교통상부 후문 앞에서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이 함께 하여 '한 · 미 방위비분담금 4차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금 분담금 대폭삭감과 특별협정 파기 등을 촉구하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 박석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등 결의 발언을 하다.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평통사 범남본 양심수후원회 등 8개 사회단체 공동으로 빈미연합집회 7주년기념 '제85차 미대사관 앞 빈미연합집회'를 열고 대북제재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기도 중단 등을 촉구하다. 평화바람의 문정현신부의 여는 말 최복렬 범남본 대회협력국장 유영재 평택범대위 정책위원장 등 결의 발언이 있었고 대북적대정책과 대북핵전제공격계획' 등 상징물을 때려부수는 상징의식이 있었고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의 격려말, 이은우 평택참여진보연대 사무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용산철도웨딩문화관에서 지난해 평양산원에서 태어난 황선 윤기진님의 둘째 딸 윤겨레 돌잔치가 있었슴. 사회각계단체 성원 등 1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 등 축하의 인사가 있었고 축하문예공연 등이 진행되는 동안 잔치 음식을 나누다.

11

김대중 전대통령은 전남대 강당에서 있은 '한반도의 현실과 4대국'이란 주제강연에서 '북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실패일 뿐 햇볕정책은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의 성공한 사례'라고 강조하다.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평양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보도하다. 담화는 '우리가 핵시험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압력 책동 때문'이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을 실현하려는 진정한 렴원으로부터 핵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다

12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소속 단체와 반전평화단체 공동으로 'PSI참여 강요로 한반도 전쟁위기 강화하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규탄기자회견'을 열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여는 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박석분 평통사평화군축팀장 등 규탄 발언과 변재훈 한총련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에서는 버시바우 미대사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며 버릇을 고쳐주려는 상징의식을 갖기도 하다.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전원석방을 촉구하는 민가협 635회 목요집회'를 열다. 이영상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헌 공동의장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주최로 '민주유공자법제정 촉구결의대회와 농성이 진행되다. 농성을 하는 동안 강민조 상임공동대표 등 보훈처 유공자법 관련 담당자 면담하고 법제정을 촉구하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공동으로 '북의 핵실험정국과 진보진영의 대응'이란 주제로 긴급정책토론회를 열다.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사회로 박경순 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과 윤진훈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발제와 한현수 통일연대 정책위원장 김영재 민주노총 통일국장 류주영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등 토론이 진행되다. 발제와 토론자들은 대부분 북의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에 맞선 생존전략이라고 했으나 핵보유에 대한 평가에서는 차이점도 있었슴.

13

태평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에서 통일연대 소속단체들은 '북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한국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전쟁을 부르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단은 미 · 중 · 영 · 러시아 · 프랑스 등 유엔안보리 이사국 대사관에 입장발표서한을 전달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팽성주민대책위 김지태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등 공판이 열리다. 원래는 지난달 22일이 선고일이었으나 검찰이 추가증거제출을 이유로 이날 변론이 재개되었지만 검찰은 새로운 증거없이 이미 제출된 유사한 증거를 내놓아 공판을 늦추려는 속셈이 드러나다. 방청한 주민들은 검찰과 재판부의 재판지연 행패로 강하게 규탄하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평택지원 앞에서 김지태위원장 석방촉구 촛불문화제를 열다.

지난 5월 4일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정지인 대추분교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반대시위로 연행되어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등 8명 중 영장실질 심사에서 노수희의장 등 6명의 구속이 확정되다. 또한 이날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되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앞에서 평택범대위 주최로 "평택지킴이 구속남발 공안탄압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검찰이 평택지킴이들에 대해 기지 확장을 저지하고 평택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투쟁에 대한 악의적인 정치탄압이라고 규탄하다. 한편 이제까지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3월15일 40명, 4월 17일에 31명, 5월4일에 524명, 5월 5일 100명, 9월13일 24명이 강제 연행되었고 이중 7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김지태 위원장 등 8명이 구속수감되다.

15

양심수후원회 10월 산행이 있었습니다. 분당선 미금역에서 모여 수지성당-풍덕천동약수터- 소정상약수터-광교산중턱-신봉리-박철민 회원의 집으로 내려오는 코스였습니다. 박철민회원은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 점심겸 뒤풀이를 푸짐하게 하였습니다. 산행에 참가한 사람 소개와 최근 핵시험과 관련된 시사문제 토의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수룡 김교영 송세영 변숙현 안학섭 신현부 나순석 나민지 김혜순 이현근 이상화 이성재 박철민 전주리 이병건 박미정 아기들 권오헌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현지시각 14일) 유엔헌장 7장41조에 따른 이른바 대북외교 경제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1718호를 채택하다 **[주요내용]** ● 유엔헌장7장에 따라 행동하고 필요한 조치로 비군사적 초처 7장41조에 따른다 ●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이북으로 오가는 화물검색에 대한협력 요청 ● 대량살상무기를 지원하는 회원국의 금융재산과 경제지원을 동결한다. ● 이북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자의 여행금지 ●결의 이행 감시를 위한 제재위원회 구성 ● 이 결의 30일 이내에 회원국들은 이행한 조치를 안보리에 보고 등이다.

박길연 주유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부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만약 미국이 조선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물리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 '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는 오는 11월 14일-16일 금강산에서 '남북언론인 통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다. 남측언론본부는 6·15공동선언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국 조선기자동맹위원장)와 지난 8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1차 실무 접촉에서 토론회 개최를 합의했고 지난 10월 14일 다시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확정했다고 밝히다.

16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한반도 전쟁 부추기는 유엔안보리결의안 규탄 및 대북제재 반대,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이날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다.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한상렬 상임대표의장의 여는 말과 시국농성의 실천단장을 맡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승호 의장, 한총련의장의 결의발언과 장수경 반미여성회 사무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 이어 이날 밤부터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동아일보사 앞에서 열다.

<창 미디어>에서 후원회소식지 180호 최종교정을 보아 기획사에 넘기다. 권오헌 임미영 함께 하다.

17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는 오는 22~23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남북해외 공동위원장단회의' 가 연기할 것을 6·15북측위와 6·15해외측에 통보했다고 밝히다. 남측위는 이른바 '핵정세' 등으로 연기한다고 하였지만 북측위와 해외측위는 '남북 해외 3자간 약속을 남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다. 한편 이와관련 6,15 남측위노동본부는 성명을 내어 남측위의 일방적 연기는 전민족적 기대와 염원에 등을 돌린 심각한 행위'라고 항의하고 연기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다.

서울서초구 서울지방법원 형사 13단독9판사 최호식) 심리로 한총련 최희정연구원에 대한 2차 심리공판이 열리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의 직접 심문에 답변을 거부했던 최연구원은 이날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당국이 조사과정에서 기소된 내용과 별도로 한총련 운동 배후조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허위진술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하다 이보다 앞서 법원 앞에서는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와 홍익대학교 동동으로 '진보적인 사상연구가 회의정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을 열다. 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 김하얀 서총련의장(홍익대 총학생회장)의 규탄 발언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검찰의 불법적인 사건 조작 음모를 규탄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송기인)는 17일 지난 10일 제27차 전원위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조사하게 될 주요사건들은 충북청원 북이면 옥녀봉 보도연맹사건, 충남서산매죽골 보도연맹사건 등 중부지역 209건과 울산보도연맹사건, 창녕보도연맹사건 등 영남지역 501건, 진도 갈명도 보도연맹사건, 함평 보도연맹사건 등 호남지역 87건 등 797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보도연맹과 관련해 219건에 대해 조사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219건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하게 돼 총 1016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중 국군경찰 CIC(방첩대) 등에 의해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1949년 4.21일부터 이른바 좌익세력자들을 사상개조한다며 강제조직하였고 전쟁 발발 후 예비구금되어 무더기로 학살되었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평통사 주최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뉴욕 워싱턴 방미투쟁단 출국 기자회견'을 열다. 평통사 방미투쟁단은 10.19일~2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38차 한 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겨냥해 불공정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반대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주한미군 방위군분담금 증액 반대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 반대 투쟁을 벌일것이라고 하다. 대표단은 변연식 공동대표 유영재 사무처장 김종일 협동사무처장 박석분 평화군축팀장 등으로 구성되다

이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내고 지난 14일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규정하고 단호히 규탄하면 전면 배격한다'고 밝히

다. 성명은 또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그 누구든지 유엔안보리〈결의〉를 내들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끝만치라도 침해하려든다면 가차없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하다. 또한 유엔안보리에 대해서도 '이번 〈결의〉를 채택함으로서 주권평등과 자결의 원칙을 초석으로 하는 유엔헌장을 짓밟고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인 나라의 분렬을 조장시켰으며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제로전복〉책동을 체계적으로 일삼아온 미국을 비호하고 묵인한 력사적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화를 바라지만 대결에도 언제나 준비돼 있다'고 미국의 태도변화가 문제해결의 열쇠임을 분명히 하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권오헌 강민조 등 상임공동대표와 실무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이상배의원을 면담,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유출 민주화운동을 폄화시킨데 대해 강력 항의하여 사과를 받고 올해 안에 명예회복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것을 촉구하다.

18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소식지 제180호 소식지 발송작업을 하다. 문상봉선생님을 비롯하여 민가협 조순덕어머니 한찬욱 신현부 김래곤 이봉주 임미영 주경임 송창학회원이 함께 하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관악구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2006 '섬과 두레방' 행사에 다녀오다. 자활후견기관은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돌보는 도우미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보내주어서 선생님들의 일상을 돌보게 하고 있다. 김승호관장 등을 만나 고마움과 축하의 뜻을 표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중근 씨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빠른 진상규명"을 촉구하다.
고 하중근 씨(포항건설노조 조합원)가 경찰의 과잉 · 폭력진압 과정에서 쓰러져 숨진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사건해결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집회 · 시위자유는 민주주의사회에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자유"라며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어정쩡한 국과수 부검결과 발표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독립된 인권옹호기관을 자처하는 인권위'가 조사결과 발표를 미룬 것과 관련, "평범하고 힘 없는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닌, 정치판단을 앞세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인권위 상임위원들에게 '고 하중근 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편지를 각각 전달하다.

동북아평화실현을 위한 대일행동네트워크 · 흥사단 · 통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핵을 이용한 군사대국화 강행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다. 양미강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등 규탄발언과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민가협 제637회 목요집회가 열리다.

후원회소식지 180호를 국내회원 931명에게 발송하다

통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오전 10시 정동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일본 방문에 이어 한국과 중국을 방문해 안보리 대북결의안 문제와 관련,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참가 반대와 '금강산관광 중단 압력 중단'을 요구하다. 한충목 통일연대 집행위원장 진행으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여는 말, 표명령 재향군인회 상임대표 민노당 김은진 최고위원과 함께 김화영 운영위원등 결의 발언과 홍근수 평통사 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었음,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정부의 PSI참가반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교류 협력을 외교적 압력으로 삼지 말 것, 6자회담 재개 방안과 환경조성 논의,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 등을 촉구하다.

라이스 미국무장관 방한에 맞춰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루 종일 그림자 시위를 진행하다. 2시30분 미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 평통사 등이 죽음의 사신 라이스 미국무장관 방한 규탄대회를 열었고 한미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는 외교통산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피켓시위와 규탄 집회를 열다. 이어 라이스의 청와대 예방시간에는 청와대 앞 〈한미 일〉 외무장관 만찬이 열리고 있는 한남동 외교통상부 앞과 라이스의 숙소인 신라호텔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저녁에는 동아일보사 앞에서 그림자 시위를 했던 활동가들이 모여 "대북제재 반대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4일째 촛불문화제를 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불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은 19일 오전 조계사 설법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하고, '대북 포용정책만이 한반도 평화의 길'임을 강조하다. 또한 '정부는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며, 경제협력 계속유지뿐 아니라 인도적 교류와 민간교류를 확대 · 보장하는 것이 시대요청"이라고 말하다. 이어 "6 · 15남측위가 방북을 유보해 22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6 · 15공동위원장단 회의가 무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민간통일 · 평화운동 단체들은 우리의 단합된 힘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없던 계획도 만들어 대북교류에 힘써야 할 때"라 밝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IT연맹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확대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지난 9월 11일 한국노총과 재계,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이 노사관계를 후진시키는 야합이라며 '필수공익사업장 제도 즉각 철폐' '대체근로 확대 기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700여명의 노동자는 결의문에서 "직권중재가 국내에서는 위헌논란이 일고, 국외에서는 수차례 개정 권고를 받은 제도"라며 "정부가 직권중재 폐지를 핑계 삼

아 범위 확대와 필수업무유지 강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등의 개악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다.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목숨을 건 투쟁이 365일 계속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라며 "국회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제 역할 못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직권중재를 때려 엄벌해야 한다"고 말하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특사로 18일 평양을 방문한 타자쉬안 국무위원이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 면담하고 후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중국 외교부 류센타오 대변인이 밝히다. 특사 일행에는 다이빙궈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부부장이 함께 했다고 하다.

20

장기구금 양심수로 22년 옥고를 치루셨으며 한문학과 서예의 대가이신 이문학회 노촌 이구영선생님이 오랜 투병 끝에 이날 새벽 2시 경기도 안양 자택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조화를 보내드렸고 20. 21일 사이에 변의숙 이득형 양계숙 이승미 송창학 주경임 김호현 안병길 이용준 이정규 소수영 권오헌님이 강북 삼성병원 장례식장으로 문병하였습니다.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전쟁을 부추기는 한나라당 규탄기자회견'을 열다. 기자회견에서는 공성진 송영선의원과 유기준 대변인 강창희 최고위원 등의 잇단 대북전쟁 불사론과 대북 강경제재론을 규탄하고 국민의 생존을 앗아가고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한나라당 해체 등을 촉구하다.

21

북녘어린이 콩우유돕기와 관련, 관련 단체들의 평양 방문이 정세와 연동되어 일정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콩우유돕기 운동본부에서 통보해 오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적극 참여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헌회장을 비롯하여 탁무권 강덕환 송창학회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회원들의 평양방문 계획이 있었음

22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비정규직 노동자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0여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학로에서 진행되다. 이들은 15명의 노동열사 영정을 준비해 "노무현 정부의 살인적 노조탄압과 반민중성"을 부각하고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와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구호를 주로 외치며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를 촉구하다. 서울지역 일반노조 김형수 위원장은 충남, 광주, 경주, 울산,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 투쟁을 상기시키며 있다"며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조차 외면한 채 손배가압류로 생존을 위협하고 수많은 동지들을 수배하고 구속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다. 이어 민노총 조준호위원장 등 지도부 18명이 11월 투쟁을 다짐하는 삭발식을 갖다. 대회를 마치고 광화문 민중대회장까지 행진하다.

광화문 교보빌딩 앞 종로 거리에서 노동자 농닌 청년 학생 민노당원 등 5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평택범대위 공동으로 <대북제재반대 북핵문제 평화적해결 한미FTA 세계화반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반미 반전 민중대회>가 열리 한상열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대회사 평택 · 팽성 주민대책위 신종원 조직국장 민노총 조준호위원장 전농 장경호 조국통일위원장 민노당 문성현 대표 등 결의 발언과 '한미FTA' '평택미군기지확장' '대북제재의 벽'을 부수고 평화의 풍선과 비둘기 모형을 날리는 상징의식을 갖다. 민중대회에서는 한청 이승호 의장과 한총련 장송회의장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및 침략적 한미동맹 재편 저지' '민중 생존권 쟁취' '100만 민중 총궐기' 자주 평화 민중 생존권 실현' 등을 다짐하다.

제주공항 1층 대합실에서 전농과 한농연 등 농민단체 대표들은 '한미FTA저지를 위한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기자 회견을 열고 망국적인 졸속 밀실 굴욕 협상인 한미FTA 4차 협상을 반드시 파탄 낼 것을 결의하다. 저녁에는 서귀포 중문단지 협상장 인근에 있는 컨벤션 센터 공터에서 한미FTA저지 투쟁 전야제를 진행하다. 문경식 전농의장 허영구 민노총부위원장 등의 결의 발언이 있었음

23

한미FTA협정 중단을 촉구하는 서울지역연석회의는 이날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서울지역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는 반대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실에서 한미FTA협상을 강행하여 벌써 4차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내팽개치는 한미FTA협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다. 이들은 한미FTA협정을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투쟁을 거론하며 '국민의 저항에도 4차협상을 강행하고 합의를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한국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경고하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크리스틴 샤네(Christine Chanet) 위원장은 한국 사법당국이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을 문제삼아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2005년 12월)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계속으로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혀 주목하다. 샤네 위원장은 26일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회의장에서 한국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 이행 여부에 관한 이틀간의 심사를 마치면서 총괄 평가를 통해 그 같이 지적하다. 샤네 위원장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사실과 반대되는 견해가 표명되더라도 기소와 수감 이외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제는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강 교수 사건은 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다.

소식지 180호 <민족21> 110부와 발송하고 81명의 구속양심수들에게 보내다.

4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원정 투쟁단 1600여 명이 회담이 열리고 있는 제주 중문단지 입구까지 진출 저지 투쟁을 벌이는

한편 한미FTA저지범국민대책본부는 중문단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다. 민노당 현애자의원 문성현대표 민노총 조준호위원장전농 문경식의장 등 결의 발언이 있었음. 한편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등 일부는 중문단지 골프장을 가로질러 신라호텔 입구까지 진출했으나 경찰제지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다. 또한 하이야트 앞바다에서는 한국수산경영인 제주어민연합회 소속어선 11척이 해상 시위를 하다. 시위군중은 오후 들어 점점 늘어나 서귀포 중문삼거리에서 7000여명이 모여 한미FTA저지를 위한 제주농축산수산인 대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제주 감귤을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갖기도 하다. 이어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까지 3km를 행진하다. 오후 3시 40분 제주 컨벤션 센터 앞 로터리에서 10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미FTA 저지범국민대회를 열다. 각계 대표가 무대에 올라가 한미FTA저지와 11.22일 총궐기를 다짐하다. 대회를 마치고 일부대열은 방파제와 방파제 사이를 밧줄로 연결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협상장으로 진출하려 했으나 경찰제지로 이루지 못하다. 해상시위와 바닷물 건너기 골프장 가로질러가기 등 회담장 진입투쟁을 다했던 대열은 오후 늦게 협상장 인근 방파제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어 서로를 격려하고 다음 투쟁을 결의하다

24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자유언론실천선언' 32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기념식은 '제12회 통일언론상 시상식'과 '제18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시상식과 함께 진행되다. 이날 통일언론인상은 KBS 스페셜 <현지르뽀 2006 북한, 중국 자본에 종속되는가>의 공용철PD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특별상으로는 마산MBC<작곡가 윤이상 10주기 특집 다큐멘터리 – 윤이상, 하늘에 새긴 선율>의 김 현 보도국 기자가 수상하다. 특히, 지난 6월 삼성그룹 관련기사를 사장이 임의로 기사를 삭제해 편집국장이 사임하는 등 편집권을 지키기 위해 사측과 싸우고 있는 시사저널 기자들에게 '안종필자유언론상' 대상이 수여되다.

<통일연대의 한반도 전쟁 부추기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규탄 및 대북제재 반대,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농성> 9일째를 맞아 민가협어머니들과 회원들이 농성을 함께 하다. 오전10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 케이티 빌딩 앞에서 진행된 농성은 9일째를 맞이하여 통일연대의 신문발행 배포와 시민들을 향한 발언을 통해서 현 시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헌 임선영 임미영이 함께 하다.

민가협사무실에서 민가협 운영위원회를 열다. 활동보고, 재정보고에 이어 열여덟 번째 인권콘서트, 보안관찰법폐지운동, 국가보안법폐지 등 안건으로 토의하다.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이날 민노당 전중앙위원이었던 이정훈씨와 재미동포 장민호씨 사업가 손종목씨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등 혐의로 체포하고 가택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지다.

25

'서울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서울 평통사)'은 평택미군기지 확장 지인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의 삶을 그린 '대추리의 전쟁(감독 정일건)'의 경찰청 앞 상영이 경찰의 과도한 봉쇄로 무산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25일 오후 7시 경찰청 앞에서 영화제 전야제 행사로 '대추리의 전쟁' 상영을 강행하고 나서다. 경찰은 평통사 최선희 국장, 서울 평통사 서영석 공동대표 등을 경찰청 앞에서 에워싸고 주최측 관계자와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모인 100여명이 경찰청 앞 건널목을 건너지 못하도록 막은 채 1시간여 실랑이 속에 주최측은 상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관람하러온 이들에게 양해를 구하다. 서울 평통사 서영석 공동대표는 "인권 경찰이라 하지만 오늘 보여준 경찰의 작태는 평택에서 보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찰을 비난하고 황윤미 사무국장은 "여기서 대추리의 전쟁을 상영하면, 서대문 구청에서 영화진흥법을 들먹이며 고소고발까지 하겠다고 했다"고 전하는 한편 "말도 안 되는 오늘의 상황에 대해 규탄 항의하는 행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지영부회장이 함께 했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세종로공원에서 오후 2시 '한미FTA저지 서울지역 결의대회'가 열리다. 이날 서울지역운동본부 이상훈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집회에서는 '한미FTA저지 서울지역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 400여명이 모였으며, 이들은 제주에서 투쟁을 서울로 옮겨와 오는 11월 22일 민중총궐기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을 다짐하다. 서총련 김하얀 의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은 "한미FTA 저지투쟁은 국회 비준국면으로 가서는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하고 "11월 22일까지 노동자는 파업으로 조합원을 조직하고, 청년학생은 자기 삶 주변에서 한미FTA저지 여론을 만들어내자"고 호소하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06년 회원 역사기행 사전답사를 다녀오다. 기행 대상지인 외세 침략의 관문이었던 강화도 일대로 전쟁 시기 특공대에 의한 양민학살현장 강화지석묘 외포리 일대와 배를 타고 석모도에 들어가 보문사 등을 답사하고 숙소와 식당을 예약하다. 다시 외포리로 나와 강화 서해안 남해안을 돌아 전등사 등을 답사하고 돌아오다. 모성룡 나정옥 윤병로 권오헌 함께 하다.

26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 사무실에서 2006년 회원역사기행이 11월 11~12일에서 11월 4~5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회원들에게 전화로 변경사유와 기행 참가여부를 물어 명단을 정리하고 일정표 회비 답사코스 등을 결정하다. 모성룡 권오헌 임미영이 함께 하다.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민가협 637목요집회를 열다.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 탄압과 관련 권오헌 공동의장의 여는 말에 이어 임기란 전상임의장의 규탄 발언 민노당 마포구당 신석호사무국장 경희대 조양진성씨 연행 사례보고와 신하철씨 등의 사례 발표가 있었음

국가정보원은 이날 또다시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등 혐의로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다. 이로써 이른바 '일심회' 사건과 관련 장민호 최기영 이정훈 손종목 이진강씨 등 구속자는 5명으로 늘어나다.

공공연맹 소속 4000여명의 조합원들은 오후 3시경 정부종합청사 옆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연맹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폭력살인 노무현 정권 퇴진"을 요구하다. 이들은 4시경 집회를 마치고 총파업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치다. 결의문에는 "노무현 정권이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로운 대추리와 도두리를 군화발로 짓밟고, 한미FTA 협상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초국적 자본이 벌이는 도박 판돈으로 걸었다"고 규탄하다.

민주노동당은 오후 5시 국가정보원 앞에서 최기영 사무부총장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구속자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노당 자주통일위원회김동원 위원장과 김선동사무총장 등은 발언을 통해 "최기영 사무부총장을 연행하는 것은 국정원의 과녁이 민주노동당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이라며 "대한민국 공당의 고위 당직자를 어떤 통보도, 소환장 발부도, 출두요구도 없이 체포, 구금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며 진보정당에 대한 악의적인 탄압"이라고 규탄하고 "한반도 위기 정세에 편승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려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의 진보정당에 대한 악랄한 탄압을 용서치 않겠다" 고 경고하고 '연행자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다.

27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민주노동당 공동으로 '신공안탄압 강력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당 탄압 중단 연행자 전원 석방과 국보법 폐지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다. 사회시민단체와 민노당당원 7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승헌 민노당 대외협력위원장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여은 말 한청 이승헌 의장임기란민가협 전상임의장 김여진 민노당 서초구위원장 등 규탄 발언과 이해삼최고위원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었음

민가협 이영 상임의장님 부군이신 백현동선생께서 오랜 위장 질환으로 투병하시다가27일 새벽운명하셨습니다. 빈소는 분당 야탑동 효성원장례식장에 차렸으며 29일에 발인하고 화장으로 모신다고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조화를 보내드렸으며 김호현 안병길 이용준 김혜순 이현근 모지희 권오헌님 등이 문상을 다녀옴

28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성원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북제재 반대와 PSI참여 규탄 등 '제6차 서울지역 반비반전월례집회'를 열다. 김규철 서울통일연대 의장의 대회사, 민노당 서울시당 정종권위원장 한청 이성환 정책위원장 서총련 김하안의장반미여성회 조선희 서울지역 본부장 등의 결의 발언, 이해삼 민주당 최고위원의 국정원의 민노당 탄압 보고와 중부민중연대 김영도 의장의 결의문 낭독.

옴시롱감시롱 10월 모임이 정향숙 김장욱 회원 신혼집에서 있었습니다. 신접살림과 집들이를 겸해서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회원들을 맞았고 함께한 회원들은 두 분을 축하하고 뜻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노당 방북대표단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방북에 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로 북경으로 떠나다. 대표단은 31일 11시 20분 이북의 고려민항기로 평양으로 들어가 방북 일정에 들어간다고 하다. 방북대표단은 문성현 대표 권영길 노희찬의원 김은진 홍성하 최고위원 등 지도부 5명과 실무진 6명 기관지 편집장 및 사진기자 등 13명이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6 · 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청년학생본부는 '청년 학생 통일답사단 방북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통일부는 지난 27일 70여명 규모의 '민족자주 반전평화실현을 위한 청년 학생 통일 답사단' 방북을 불허한데 따른 기자회견이었습. 이승호 한청의장 장송희 한총련의장 등 규탄 발언과 김익석 청학본부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음

30

저녁 7시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제18차년도 제6차 운영위원회를 열다. 활동보고와 재정보고 그리고 회원관리 직업 성과 보고에 이어 만남의 집 법인신청 진행 과정 및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다. 또 11월 4~5일에 있을 회원역사기행에 대한 준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다.

미국산 쇠고기가 이날 2년 6개월만에 9톤이 반입되면서 세종로 종합청사 앞에서 한미 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전국 한우협회 남호경회장 전농 전기환사무총장 박석운집행위원장 등 규탄 발언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엄상호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31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통사가 주관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제62차 평화군축집회'가 열리다. 이경아 활동가 사회로 박석분 평화군축팀장 이승호 한청의장 등 결의 발언과 지난 20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열리고 있을 때 방미투쟁단으로 뉴욕과 워싱턴 등에서 투쟁을 하고 돌아온 변연식공동대표 유영재사무처장 김종일 협동사무처장 박석분 평화군축팀장 등 보고가 있었음 마지막으로 임종철 공동대표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종로 5가 기독교회관 식당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후원의 밤 행사가 진행되다. 소속단체 회원 7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병주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헌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인 정동익 동아투위위원장 임기란 전민가협 상임의장 등 격려 인사가 있었고 지난 1년 간 활동한 영상물 상영 등이 있었음

이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미국 중국의 6차회담 수석대표가 베이징에서 비공식 회동을 갖고 '6자회담 참가국이 편리한 빠른 시일 안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어 '10월 31일 중국정부의 제안에 따라 중국 조선 미국의 6자회담 대표가 참석한 비공식협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됐고 3개국은 6자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도 깊숙한 의견 교환을 했고 형편이 좋은 시기에 6자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하다.